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복구 속도

전북도, 7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6000만원 · 공공시설 복구비 30억7000만원 규모

전북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 금 지급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의 호 우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고 9일 밝혔다. 이에,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할 수 있도록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은 신속하게 복구한다.

지난달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고온다 습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돼 도내 대부 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농경지 및 저지대 주택가와 상가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파손 31동, 농작물 피해 119ha, 산림작 물 피해 3.8ha, 농경지 침수 9.9ha, 상 가침수 201건 등으로, 약 3억 4천만 원 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공시 설은 도로 사면 낙석발생과 도로 유실 등 16건, 하천 제방 유실 5건 등 약 7 억 6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6천만 원, 공공시설 복구비 30억 7천만 원 등 총 36억 3천만 원 규모의 복구계획 을 확정했다.

복구계획과는 별도로 침수피해를 본 익산 상가 201곳에는 재해구호기금으 로 상가당 2백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면 융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 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 개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는 시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 원금은 8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는 예비비 28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복 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 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공공시설도 조기에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어린 토종 붕어 30만 마리 도내 7개 시 · 군 하천 · 저수지에 방류

전북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토종 붕어 30만 마리를 도 내 7개 시・군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내수면 수산자 원 증강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 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어린 토 종 붕어 30만 마리를 도내 7개 시·군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한다고 9일 밝혔

방류는 군산시 옥구저수지(5만 마 리), 익산시 낭산저수지(5만 마리), 완 주군 만경강(4만 마리), 무주군 남대 천(3만 마리), 장수군 금강(4만 마리), 순창군 섬진강(4만 마리), 부안군 유 유제(5만 마리)에서 일제히 이뤄진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붕어는 자체에 서 사육 관리 중인 붕어 어미로부터 5 월에 수정란을 확보해 약 3개월간 4cm 이상까지 건강하게 성장시킨 것으로. 방류 후 2~3년이 지나면 20cm 내외의 크기로 성장해 도내 어업인 소득향상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붕어는 전국 호수나 하천 등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어종이며, 돌 이나 수초에 붙은 미생물과 물속에 사 는 곤충 같은 작은 동물들도 잡아먹으 며, 수중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칼슘과 철 함량이 높아 발육기 어린이나 빈혈이 있는 사 람에게 효능이 있으며, 무더운 여름에 지친 기력을 회복시키고 체력을 향상 시키는 등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 번 붕어 방류로 내수면의 건강한 생태 계 유지 및 수산지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토 산어종의 지원증강을 위해 다양한 어 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연일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9일 김제시의 '무더위에 자라난 참깨 적심(摘心) 하는 농부' 참깨밭에서 한 농부가 적심(摘心)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적 심(摘心)은 생육 중인 작물의 줄기 또는 가지의 선단 생장점을 잘라주어 분지수를 늘이거나 생육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순 자르기'라고도 불린다.

도내 관광지 방역 · 관리요원 297명 채용

관광업계 휴직자 · 실직자 우선 채용해 일자리 위기 극복 · 방역관리 총력

전북도가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과 관광업계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주 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를 강화한다.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도산위기에 처한 관광업계 휴직자·실직자 및 취 약 계층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 24억9400만 원을 확보, 도내 관광 지 86개소에 방역・관리요원 297명을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북도의 관광지 방역・관리요 원 채용은 문체부의 '관광방역·수용 태세 개선사업 일환이다.

문체부는 총 252억 원을 지원해 전국 지자체에 관리요원 3,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관광지 86개소 297명의 방역 관리요원 배치에 따른 소요예산을 문체부에 신청해 국 비 약 2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문체부 지원예산의 약 10% 정 도로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금액이다. 방역·관리요원은 관광지에서 마스 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안내, 관광 객 동선 관리, 방역수칙 안내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

방역요원의 평균 급여는 180만 원이 며,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한다.

8월 중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14개 시 · 군이 자율적으로 진행, 자세한 사 항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관광업계 휴직자 · 실직자를 우 선 채용해 도내 관광업계의 극심한 고 통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코로나19 비수 도권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며 "주요 관광지 적재적소에 관리요원 배치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전북도, 예비마을기업 신청 접수

25일까지… 현지조사 · 적격검토 등 통해 4개소 지정

전북도가 전북만의 특수성을 살 린 '예비마을기업'을 발굴해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마을기업 신청을 10일부터 25 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예비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워 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 이 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의 사전 형태를

도는 공모를 통해 전북의 특수성 을 살린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및 청년형, 신(新)유형 마을기업을 적 극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 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이 며,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 해야 하다.

다만,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의무, 미 설립 시 지정

취소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시・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마을기업 지 원기관)의 현지조사와 적격검토를 거친다. 이후 전북도는 최종 심사 를 통해 4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천 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 는 교육 및 컨설팅, 상품개발 등 경상적 경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신청서, 사 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명단. 법 인등기부 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 취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도는 조력자 역할을 다해 경 쟁력 있는 공동체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예비마을기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기 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휴가 후 일상복귀 전 진단검사 권고

전북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확산 방지 위해

전북도가 휴가 후 일상 복귀 전 가 족, 이웃, 직장 동료 등을 위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1개월가량 1,0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전북도도 확진자가 연일 20명 안팎인 위중한 상황에 휴가철까지 겹쳐 확산 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휴가를 다녀오거나 도내에서 각종 모임을 통해 확진되는 사례가 급 증하고 있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휴가 후 일상 복귀 전 코로나19 진단검시를 실시해 줄 것을 권고하며, 시·군과 함께 적 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타 지역 방문이나 타 지 역에서 도내 방문자와 만남 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 실시를 당 부했었다.

히지만, 최근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 산으로 전파 속도도 빠르고, 무증상 환자도 많은 상황이라 증상이 없더라 도 휴가 복귀 후 일상복귀 전에 적극 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 력히 권고하게 됐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휴가지에서도 방 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도 방역당국은 ▲덥거나 답답하더라 도 반드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휴 게소와 음식점 등에서는 장시간 머무 르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만 머무르고, 실외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m 이상 거리두기도 마스크 착용만큼 중요한 방역수칙인 만큼 철 저한 준수와 함께, ▲3밀(밀폐, 밀집, 밀접) 장소 등 방역취약 장소는 피하 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 면 여행을 중단하고 진단검사를 실시 해야 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열제를 복용하 고 휴가를 진행하다가 감염이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 및 법적 처벌을 받 을 수도 있다.

이처럼 휴가 중에도 방역수칙을 철 저히 준수해야 즐거운 휴가와 함께 복 귀 후 가족이나 공동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언급했다.

송하진 도지시는 "전북도가 코로나 19 청정지역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도 록 도에서도 관광지뿐만 아니라 위험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 겠다"고 강조하면서 "도민들도 집단면 역이 형성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 지 방역대응에 동참해 주시고, 백신접 종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 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모 집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석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단교수 주요경력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KBS TV 아침마당 ,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한 >

7 7 7 1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길제스피치 펴색아카테미	스피치&우으코치(야간)(우으자결즉)	긴계 부아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약)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